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박 병 섭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교호(享保)기의 마쓰시마(독도) 인식
3. 덴포(天保) 다케시마 일건
4. 에도시대 말기 「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
5. 일본 외무성의 조사
6. 내무성의 조사 『이소타케시마 각서』
7. 관찬 지지 『일본 지지 제요』
8. 태정관 ‘다케시마 외 1도’ 지령서
9. 메이지시대의 관찬 지도
10. 조선에 대한 영향
11. 결론

〈국문초록〉

안용복 피랍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元祿竹島一件)’의 결과, 에도 막부(江戶幕府)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에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이름은 없었지만 금지령을 내린 경위를 생각하면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된 것이다. 게다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은 1724(교호 享保9)년에 돗토리번으로부터 에도막부에 제출된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付) 3통」에 부속된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竹島圖)」에서 확인된다. 이 그림지도는 분명히 다케시마·마쓰시마의 한 쌍을 조선영토로 그렸다.

그 후 에도막부는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 때에 사건 기록 『조선 다케시마

* 이 논문은 2012년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를 작성했는데 이에 부속된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그렸다.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인식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인식은 에도시대 말기까지 계속됐으며, 에도막부는 초슈번(長州藩) 가쓰라 고고료(桂小五郎) 등으로부터 제출된 마쓰시마를 포함한 다케시마 개척 청원서에 대해 다케시마는 덴포기에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런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보는 인식은 메이지(明治)정부에도 이어졌다. 메이지 초년에 조선을 내침하기 위해 부안의 왜관 등으로 파견된 일본외무성 관료들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충분히 조사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

한편, 일본내무성에서는 지지과가 관찬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조사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소다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편찬했다. 이 직후 지지과는 태정관으로 옮기고 관찬지지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를 편찬했으니 이 책에도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내무성 및 태정관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으니 시마네현에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 질문서(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가 제출됐을 때 쉽게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식에 근거해 내무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관해 일본영토 밖으로 하는 관찬지도를 작성했다. 특히 지도 책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国全圖)』에서는 1871년부터 1883년까지 일본 각지의 소속의 변천을 지도 12장에 밝혔는데 이 모든 지도에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없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역사상 독도를 조선·한국 영토로 판단한 일은 몇 번이나 있으나, 독도를 일본영토로 판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1905년에 일본땅으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제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元祿竹島一件), 교호(享保) 「다케시마 도(竹島圖)」,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 『이소다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 『일본 지지 제요(日本地誌提要)』,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国全圖)』

1. 머리말

1693년 울릉도로 출어한 안용복은 일본 돛토리번(鳥取藩)의 상인 오야(大谷) 가문에 의해 피랍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쓰시마번(對馬藩) 사이에서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를 조선에서는 울릉도쟁계, 일본에서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이라 부른다.

외교 교섭에서 쓰시마번은 에도막부의 명에 따라 조선정부에 조선 어민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섭이 복잡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쓰시마번에서 보고를 받은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해 돛토리번 등에 질문했다. 돛토리번은 다케시마 소속에 관해 이 섬은 돛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 따로 마쓰시마(독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도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마쓰시마를 알게 된 에도막부는 돛토리번이 말하는 대로 마쓰시마(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에도막부가 내린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에는 당연히 마쓰시마도 포함됐던 것이다.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이 조선에 전달되기 전인 1696년 봄에 안용복 등은 이번에는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 오키(隱岐) 관아에서 일본의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자산도이며 모두 조선 강원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며, 오키 대관(代官) 수하가 그들의 주장을 기록하고 막부에 보고했다.¹⁾ 안용복 등은 다음에 돛토리번으로 갔는데, 이 때에 그들이 탄 배에 "조울 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朝鮮兩島監稅將臣 安同知驕)"라고 쓴 깃발을 세웠다. 이는 "조울 양도는 울릉도 <일본에서 이를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자산도 <일본에서는 이를 마쓰시마라고 부른다>."²⁾라고 이해됐다. 한편, 오키 관아에서 안용복 일행이 '다케시마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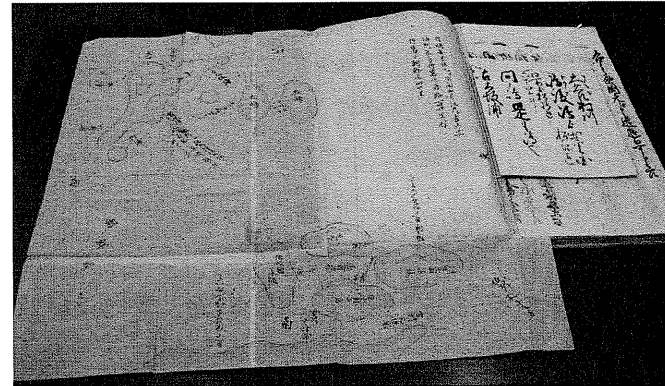
1) 무라카미가문서(村上家文書), 즉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2) 『이나바시(因幡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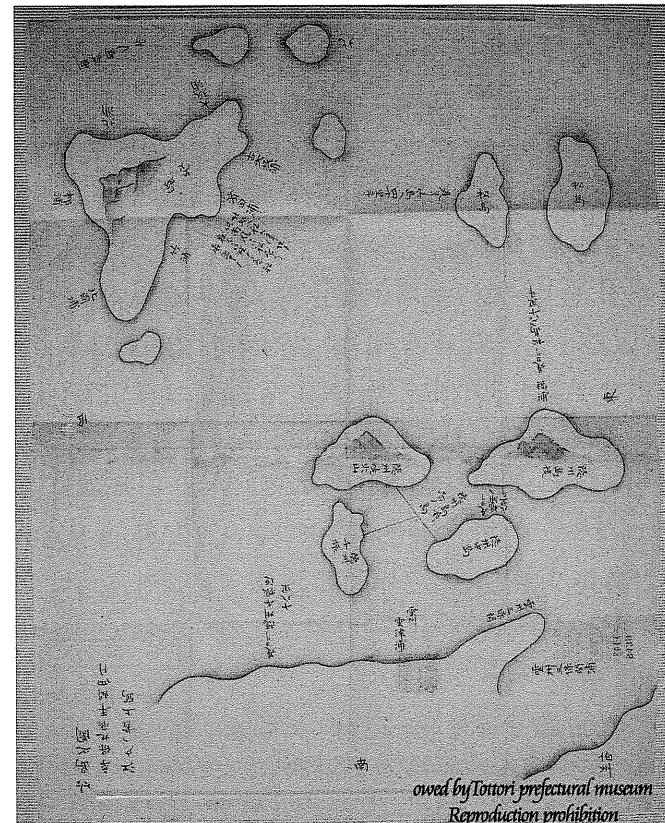
송³⁾으로 돛토리번에 갔다는 연락을 받은 돛토리번은 유학자를 파견해 그들과 필담을 시켰다. 이 결과 등을 돛토리번은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대처 방침을 물었다. 에도막부는 방침을 몇 번이나 바꾸었는데 결국은 안용복 일행을 추방했다. 이런 잘 알려진 안용복 사건이 후세의 독도 영유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2. 교호(享保)기의 마쓰시마(독도) 인식

안용복사건에서 30년 후, 돛토리번과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다. 교호기의 '다케시마 밀무역 사건'이다. 1723(교호 8)년, 오사카마치부교⁴⁾(大坂町奉行)는 이와미(石見, 시마네현 서부)에 사는 가에(嘉右衛) 등을 7년 전에 다케시마(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했다는 혐의로 잡았다.⁵⁾ 그 다음 해에 에도막부는 사건 처리에 필요했는지 돛토리번에 다케시마에 관한 7개조의 질문을 했다. 이 내용은 1692~93년에 요나고 상인들이 다케시마에서 조선인과 만났을 때의 상황, 다케시마의 산물이나 생물, 토지의 넓이, 다케시마에서 호키국이나 조선까지의 거리 등이었다.⁶⁾ 이에 대해 돛토리번은 예전에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얻어 회답했다. 이 기록이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付)』에 있는 「교호 9년 갑진년 윤4월 16일 막부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 다케시마노 가키쓰케 3통」⁷⁾이다. 이



[도판1] 에도막부에 제출된 교호기의 「다케시마 도」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체로 조선 땅으로 표시



[도판2] 교호 「다케시마도」를 수정하기 전의 「다케시마 지도」

owed by Toonri prefectural museum
Reproduction prohibition

3) 『御用人日記』元祿9년 6월 22일의 기록에 「隱岐國より申來候は 竹島之儀付て御訴訟參候旨申由之注進」라고 써있다.
4) 오사카 지방을 중심으로 행정, 사법 등을 관할했다.
5)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p.23.
6) 『因府歷年略史』.
7) 「享保九甲辰年閏四月十六日公儀之被遊御差出御書付の控 竹島之書付 三通」, 『竹島之書付』, 鳥取県立博物館 소장; 塚本孝, 「竹島關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 『レファレ

기록에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竹島圖)」(도판1)가 철해져 있는데, 이 그림 지도에서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와 일체로 표현했다. 게다가 그 밑에 '조선국'이라고 기입됐으니 이는 분명히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다케시마 도」와 비슷한 그림지도 「다케시마 지도(竹島之圖)」(도판2)가 『다케시마노 가키쓰케』에 묶여 있지 않고 부속 봉투 속에 들어가 있다. 이 그림지도에는 서북 구석에 '조선국 쪽'이라고 기입되고 있다. 또한, 마쓰시마의 위치는 오키와 다케시마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 이들 그림지도 2장에 “교호 9 갑진 윤 4월 에도에 올린(書上)사본(享保九甲辰閏四月 江戸江 書上ノ写)”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그림의 모양이 다른 이들 그림지도 2장이 함께 에도막부에 제출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막부에는 『다케시마노 가키쓰케』에 철해져 있는 「다케시마 도」(도판1)만 제출되고, 묶여져 있지 않았던 「다케시마 지도」는 제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케시마 지도」는 앞의 봉투 속에 분명히 초안으로 생각되는 다른 그림지도 2장과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청색으로 색칠됐다. 이들과 구별하듯이 「다케시마 도」만 황색으로 색칠되어 앞의 회답서 「사본」에 철해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청색으로 색칠된 「다케시마 지도」 등 3장은 막부에 제출되지 않고, 황색으로 색칠된 「다케시마 도」만 막부에 제출됐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 돗토리번은 「다케시마 지도」를 그린 후에 이를 수정한 「다케시마 도」만 제출했다고 생각된다.⁸⁾ 또한, 일본정부도 “특히 이케다 가문 구장(舊藏) 「다케시마 도」는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정(調整)해 제출된 것의 복사이며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⁹⁾”이라고 쓰고 「다

케시마 도」가 막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적인 성질을 가진” 「다케시마 도」는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와 일체인 것처럼 그리고 두 섬들을 '조선국' 영토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시마네현은 팸플릿 「다케시마」에 「다케시마 지도」(도판2)를 싣고 “막부에 제출됐다”¹⁰⁾고 설명했지만, 이는 앞에 쓴 바와 같이 의문이다.

결국 돗토리번이 제출한 공적인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에 의해 막부도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을 것이다.

3. 덴포(天保) 다케시마 일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영향은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게도 미쳤다. 이 사건은 이와미 하마다(石見濱田, 시마네현 서부)의 해운업자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¹¹⁾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일본 해운업의 발달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분카·분세이기(文化·文政期, 1804~30)에서 덴포기(1830~44)에 이르러 해운업이 성하게 됐다. 배는 대형화되고 천 석짜리 배 등에 의해 대량의 물자가 운반됐다. 이에 따라 일본 서북부 지역에서는 연안 항로에서 벗어나 외양 항로가 개발되고 다케시마·마쓰시마 근처를 지나가는 배가 점점 늘어났다.¹²⁾ 이 결과 다케시마·마쓰시마에 침입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

의見解」.

10) 『竹島』, 島根県発行[PDF版: 2006년 2월 22일 발행]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6/index.data/panf2008.6.5.pdf>

11) 별명을 아이즈야(會津屋) 하치에몬이라고 하지만, 이마즈야가 옳다고 한다.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

12) 하마다번의 나카가와 아키스케(中川顯允) 『이와마 가이키(石見外記)』 부속 지도

8) 「다케시마 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를 40리(160km), 마쓰시마와 오키 사이의 거리를 60리(240km)라고 쓰고 이에 알맞은 위치에 마쓰시마를 그렸지만, 「다케시마 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를 40리라고 썼지만 거리를 무시하듯이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바로 옆에 그렸다. 이는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와 일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9) 1954.2.10.付 「竹島に関する1953年9月9日付大韓民國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國政府

것이 일본인의 제2차 울릉도 침입이다.

그런 침입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덴포 다케시마 일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하치에몬(八右衛門)은 하마다번의 승인을 은밀히 얻어 1833(덴포 天保4)년부터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하고 벌목 등을 했다. 그러나 1836년에 발각돼 오사카마치부교(大阪町奉行)에 의해 체포됐다. 부교가 하치에몬을 조사했더니 사건에는 하마다번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막부의 최고 사법 기관인 평정소(評定所)로 넘기고 6월에 하치에몬을 평정소 산하의 지사부교(寺社奉行)로 인도했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하마다번 전 태수를 칩거시키거나 하치에몬 및 하치에몬과 결탁한 하마다번의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 등을 처형하는 등 관계자를 엄벌에 처했다.

그러나 일찍이 일본정부는 1950년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의 근거로 이 사건을 인용했다. 즉 「일본정부견해 3」¹³⁾은 이 사건 판결문에 밀무역을 한 하치에몬이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가고”라는 글이 있으니, 이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주장을 바탕으로 했는데,¹⁴⁾ 이에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가 찬성했다.¹⁵⁾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이에 이의를 제시해 “하치에몬이 처형당한 사실은 하시모토 산베에의 교사(앞의 변명, 주)가 통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와카미의 가설은 성립되지 않다”¹⁶⁾고 반론했다. 이런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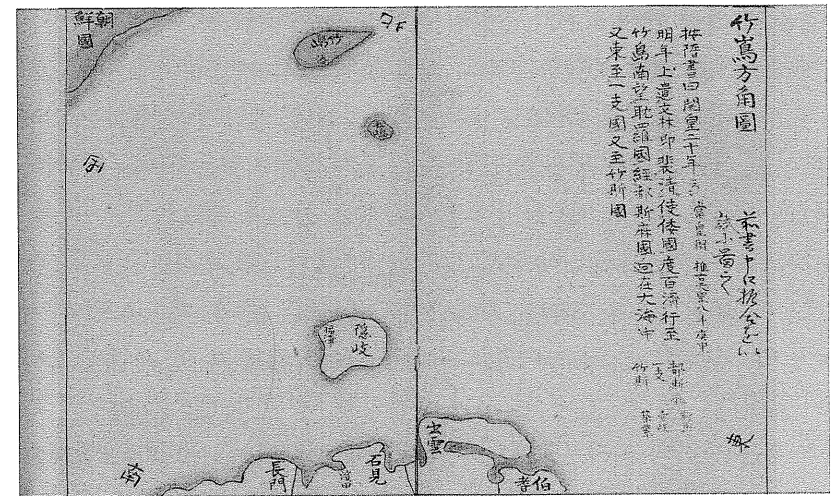
「大御國環海私圖」에 “다카다야 가헤(高田屋嘉兵衛) 상선은 조선해에 나가 에조(蝦夷) 땅으로 가는데, 이는 시모노세키(下ノ關)를 출발해 서북 방향으로 8리(32km) 가고 마쓰·다케(松竹) 두 섬 사이를 빠져 동북을 목표로 간다.”고 썼다.

13) 1956.9.20.付 「竹島に関する1954年9月25日付大韓民國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國政府の見解」.

14)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p.191. 판결문은 “右最寄松島へ渡海之名目を以て竹島え渡り塚方見極上...”라고 썼다.

15) 塚本孝, 「韓國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 『東アジア近代史』 第14号, 2011, p.56.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 기록 『다케시마 도해 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¹⁷⁾가 작성됐다. 이는 하치에몬의 진술 조사서인데, 이에 「다케시마 방각도(竹島方角圖)」(도판3)가 첨부됐다. 이 지도에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 오키·산인(山陰)지방은 노란 색으로 색칠되었으며,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 안에 “앞의 글의 진술과 대조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지도를 그린다”고 썼으니 「다케시마 방각도」는 진술 조사서와 대조하기 위해 하치에몬을 처음에 취조한 오사카마치부교가 만들었다고 생각된다.¹⁸⁾ 오사카마치부교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본 것이다.



【도판3】『다케시마 도해 일건기』 부속지도 「다케시마 방각도」

다케시마·마쓰시마 및 조선 본토는 붉은 색, 오키·산인 지방은 노란 색.

16) 池内敏, 「近世日本の西北限界」, 『史林』 90卷 1号, 2007, p.132.

17) 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蔵. 翻刻文은 森須和男 전개서, p.3(資料編).

18) 박병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심포지움 보고서』, 대구한의대학교, 2011, p.149;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 p.28.

하치에몬이 오사카마치부교로부터 지사부교에 옮겨진 후에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조사를 했다. 이훈이 발굴하고,¹⁹⁾ 이케우치 사토시가 재해석을 한²⁰⁾ 사료 「대마도 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²¹⁾에 따르면 막부는 7월 17일에 쓰시마번의 에도번저(江戸藩邸)를 불러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해 질문했다. 막부는 “두 섬은 다 조선의 울릉도이나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라는 것은 조선 밖의 땅이냐” 등 물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1)다케시마는 강원도의 울릉도이며, (2)겐로쿠기에 쓰시마번이 막부의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건너가고 어업을 했다는 것이 아래 것들의 풍설입니다”고 대답을 한 것, (3)마쓰시마도 “다케시마와 같이 일본인이 건너가고 어업을 한 일에 관해 도해가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를 단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라고 회답했다. 쓰시마번도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단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고 회답한 것은 도해가 금지됐는지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당연히 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쓰시마번의 회답을 감안해 막부가 ‘다케시마 방각도’를 수정한 것이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²²⁾의 부속 지도(도판4)이다.²³⁾ 이 『시말기』는 로쥬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가 이 사건의 오카카리(御掛り), 즉 담당으로 된 후의 기록이니 『시말기』는 에도막부의 평정소 혹은 산하의 지사부교에서 제작됐다고 생각되며, 에도막부의 대외 관계 사료집 『통항일람 속집(通航一覽續輯)』에 거의 같은 글이 수록됐다.²⁴⁾ 단 『통항일람 속집』에서는 이 사건이 ‘잠상 형벌’에 분류됐으니, 잠

상에 관계없는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나 하치에몬을 체포한 오사카마치부교의 지략 등은 게재되지 않았다. 또한, 부속 지도도 게재되지 않았다. 부속 지도에서는 도판4과 같이 일본 혼슈(本州), 오키, 쓰시마는 무색이지만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나 부산 부근의 섬과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됐다. 이 지도도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보았으며,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다는 하마다번의 변명을 부정한 것이다. 이들 2장의 막부 기관이 작성한 지도에서 막부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생각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위법이며, 일본정부나 쓰카모토 다카시 등의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덴포기의 ‘다케시마 도해 일건’을 수습한 에도막부는 전국적인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리고 온 포구에 팻말을 세웠다. 팻말은 “(다케시마는, 주) 겐로쿠기에 조선국으로 넘겨준 이래 도해정지를 명하신 곳이다… 도해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여러 나라의 상선 등은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를 만나지 않도록 항로에 조심해야 한다는 예전의 명령을 잘 지키고 이후는 되도록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해해야 된다.”고 명했다. 이 팻말에 마쓰시마의 이름은 없지만,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쥬는 “먼 바다로 가는 배밖에 갈 수 없는 마쓰시마를 도해금지령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²⁵⁾라고 주장했다. 이는 막부의 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 타당한 견해이다.

19) 이훈,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2005, p.43.

20)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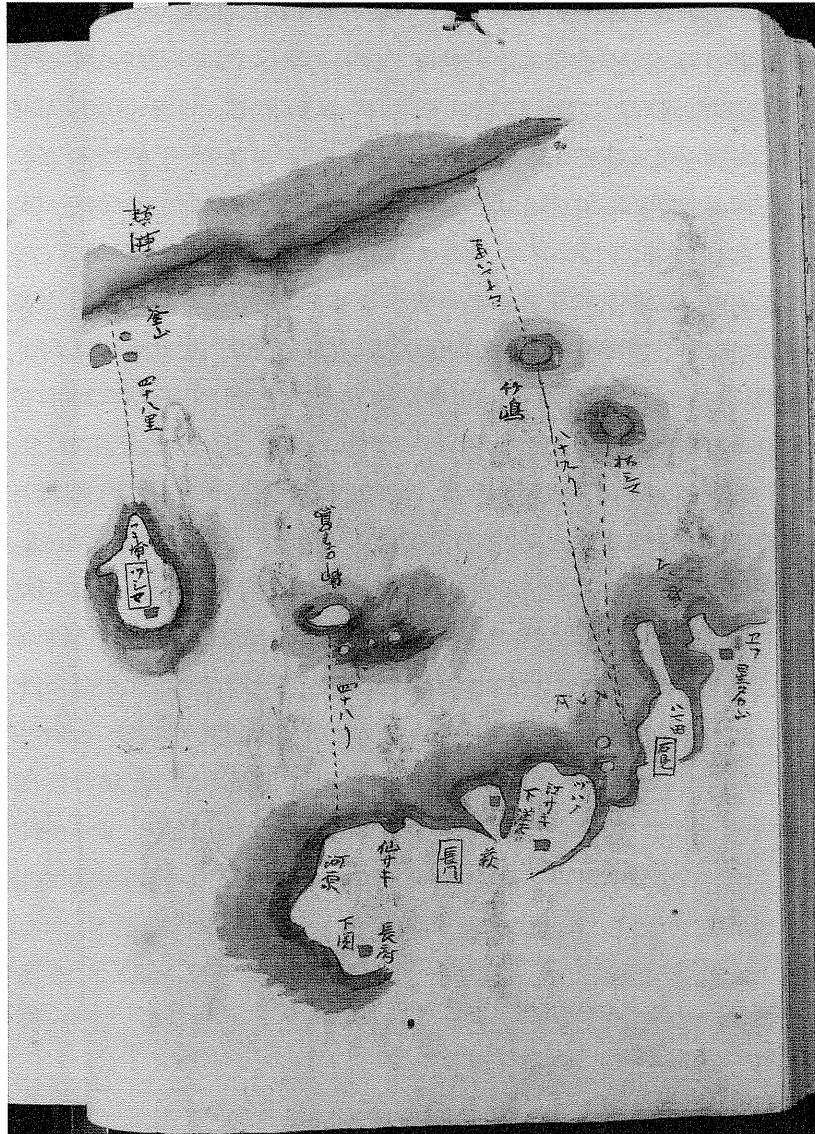
21) 「대마도 종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목록 #4013.

22) 浜田市立図書館所藏. 翻刻文은 『新修島根県史』史料編3(近世下), 1967, pp.328-335.

23) 박병섭, 전계 논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p.150; 朴炳涉, 前掲「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p.29.

24) 『通航一覽續輯』卷之五. 번각은 筋内健次, 『通航一覽續輯』第1卷, 清文堂出版, 1968, pp.82-90.

25) 内藤正中,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34號, 2010, p.7.



[도판4] 에도막부가 작성한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의 부속지도.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

이 사건의 결과는 독도문제에 중대한 결과를 남겼다. 에도막부가 마쓰시마(독도)를 확실히 조선 땅으로 판단했으니, 외무성의 “일본은 17세기말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독도, 주)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²⁶⁾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 에도시대 말기 「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

덴포기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알리는 팻말에 “다케시마는 겐로쿠기에 조선국에 건네주게 되었다”고 쓴 것이 후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는 본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었다는 뜻이 스며있다. 이 인식에 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에게 울릉도·독도를 침탈하려는 움직임을 초래했다. 이 인식은 아오키 곤요(青木昆陽)의 『초로잡담(草廬雜談)』에 이어지고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 등에 영향을 미쳤다. 마쓰우라는 1854년에 고본(稿本) 『다케시마 잡지(多氣甚麼雜誌)』를 지인에게 배포해, 1871년에는 『다케시마 잡지(竹島雜誌)』를 발간했다. 그는 잇따른 외국선의 침입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다케시마 잡지』를 펴낸 목적은 다케시마 개척을 재촉하고 국방 의식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메이지정부의 기틀이 된 초슈 번(長州藩)의 지사(志士)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 무라타 조로쿠(村田蔵六)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²⁷⁾ 이들 중에서 요시다는 외국 밀항을 시도해 체포되어 옥사에서 죽었지만, 가쓰라는 후에 이름을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라고 바꾸고 메이지정부의 요직인 참의(参議)까지 올랐던 인물, 무라타는 후에 이름을 오무라 마수지로(大村益次郎)라고 바꾸고 일본육군의 창설자로

26) 外務省,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十のポイント』, pp.5-6.

27) 岸本覚, 「幕末海防論と「境界」意識」, 『江戸の思想』 9, ペリカン社, 1998.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들이 개간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에는 다음과 같이 마쓰시마(독도)도 들어가 있었다.

다케시마, 오사카지마(大坂島), 마쓰시마를 합쳐서 다케시마라고 한다. 25리(100km)에 흩어져 있다. 다케시마 만으로 18리 있다. 3섬 모두 사람은 없다. 오사카지마에 대신궁(大神宮)의 작은 사당이 있다. 이즈모(出雲)에서 해로 120리 (480 km) 정도다. 산물, 뱀, 물고기, 좋은 목재 등이 많이 있다. 개간하면 기름진 밭이 되고 좋은 땅으로 된다.²⁸⁾

이 글 중에 오사카지마는 오야 가문 등이 오사카우라(大坂浦)라고 이름을 지은 곳 근처에 있는 섬, 즉 죽도(죽서)를 말한 것 같다. 이 섬 및 마쓰시마를 포함한 다케시마 개간을 위해 가쓰라와 무라타는 「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를 에도막부에게 1860년에 제출했다. 그들은 다케시마가 울릉도임을 알고 있었으며, 건언서에 “다케시마는 조선에 넘겨진 섬이라는 설도 있지만 만국지도에는 ‘다케에이 라라도’라고 써 있으니 분명히 일본 땅²⁹⁾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외국이 다케시마를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개간을 초슈번에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신청했다. 여기에 ‘다케에이 라라도’는 ‘다케 아이랜드’ 즉 ‘다케시마’의 잘못된 것 같다.

이 건언에 대해 에도막부는 덴포기에 다케시마는 조선 부속의 섬이라고 언도했기 때문에 개간을 허용치 않겠다고 전했다.³⁰⁾ 막부는 겐로쿠기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이어받은 덴포기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간직한 것이다. 이로서 초슈번의 다케시마 개척 계획은 무산됐다.

5. 일본 외무성의 조사

안용복사건의 영향은 메이지시대 외무성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 조사에도 볼 수 있다. 1870년에 조선을 내탐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등 3명은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일본외무성 및 태정관에 보고했다. 태정관이란 국가의 최고기관, 즉 메이지정부 수뇌부라고 볼 수 있다. 모리야마 등의 보고서에 대해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는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모두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³¹⁾고 썼으며, 시마 네현도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도 조선땅으로 됐다는 것이다”³²⁾고 평가했다. 한편,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이것도 겐로쿠기의 ‘다케시마일건’에서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넘어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보고였다”³³⁾고 폄하했으며,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은 쓰지 않았다”³⁴⁾고 오해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이를 무시했는지 아무 언급이 없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어느 때는 “사다 하쿠보의 마쓰시마가 현재의 다케시마(당시 리양코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이는 사실 오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³⁵⁾고 썼으나, 5개월 후에는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도 조선령이 됐다는 놀라운 표제였다”³⁶⁾고 말하는 등 여전히 변설이 심하다.

31)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2007, p.19.

32) 島根縣 팜플릿, 『竹島』 pdf版, 2006년 2월 22일 발행.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6/index.data/panf2008.6.5.pdf>

33)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호, 1987, p.104.

34)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第3版)」, 『調査と情報』 701호, 2012, p.4.

35)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05, p.61.

36) 「発信竹島—真の日韓親善に向けて—: 第2部 「勅令vs閣議決定」—明治時代—(2)残つ

28) 吉田松陰より桂小五郎宛手紙、1858.7.11, 『吉田松陰全集』 第9巻, 大和書房, 1974, p.61; 小美濃清明, 『坂本龍馬と竹島開拓』, 新人物往來社, 2009, p.43.

29) 『木戸孝允文書』 8, 日本史籍協会, 1931, p.8.

30) 小美濃清明, 전개서, p.72.

이들 연구자들은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일본외교문서』 3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원문에는 있는 “다케시마의 건에 관해서는 겐로쿠기의 왕복서간,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라는 글을 간과한 것 같다.³⁷⁾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리야마 등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경위를 잘 조사한 것이며, 이 결과를 부록 별책 『다이슈(對州) 조선 교제 취조서』(『취조서』라고 약칭) 안에 「다케시마 일건」이라는 대목으로 상세히 썼다. 「다케시마 일건」은 숙종기에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왕복된 울릉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중요한 서간 6통을 분석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³⁸⁾

그런데 『취조서』 안의 「다케시마 일건」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た火種」, 『山陰新聞』, 2005.8.24.

<http://www.sanin-chuo.co.jp/tokushu/modules/news/article.php?storyid=105059145>

37) 『公文別錄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第一卷(國立公文書館所藏)은 다음과 같이 썼다.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이 된 시말」

이 건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의 이웃에 있는 섬으로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 다케시마의 건에 관해서는 겐로쿠 때의 왕복서간,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 겐로쿠 이후는 잠시 동안 거류를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지금은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어졌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연히 자란다. 그 외에 수산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들었다.

38)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2호, 2012, p.164.

서간 6통은 다음과 같다. 단 괄호 안의 연월은 『다케시마 기사』 강문(綱文) 날짜이다.

1. 다케시마를 침범한 조선어민을 송환하고 조선어민의 출어 금지를 요구하는 쓰시마번의 1693년 9월 일자 서간 (1693년 10월)
2. 일본의 처치에 감사하고 울릉도 도해 금지를 알리는 조선의 1693년 12월 일자 서간 (1694년 1월)
3. 조선의 서간에서 글자 ‘울릉’의 삭제를 요구하는 1694년 2월 일자 쓰시마번의 서간 (1694년 3월)
4.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조선어민의 구속을 항의하는 조선의 1694년 9월 일자 서간 (1694년 9월 12일)
5. 최종적으로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조선의 1698년 3월 일자 서간 (1698년 4월)
6. 다케시마일건의 해결을 축하하는 쓰시마번의 1699년 1월 일자 서간(1699년 1월)

된 시말은 잘 기록되고 있으나,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모리야마 등은 『내탐서』에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고 썼는데, 역시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는 쓰시마번 자료에는 아주 적다. 앞에 쓴 바와 같이 간신히 쓰시마번이 에도막부에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도 도해가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된다고 회답한 기록이 있다. 모리야마 등 조사단은 이런 기록 등을 보고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조사단 전원이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가 없어도 “다케시마 이웃에 있는 섬”에 관한 쓰시마번의 인식, 혹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및 ‘텐포 다케시마 일건’에 관한 간단한 기록 등을 중시해 마쓰시마, 즉 독도를 조선영토로 판단한 것이다.

6. 내무성의 조사 『이소타케시마 각서』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영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영역을 결정하고 각 지역의 소속을 확정하는 기관은 내무성이 맡았다. 내무성은 이 과정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도 조사했다. 내무성 지리료(地理寮) 지지과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에 관한 쓰시마번의 자료 『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나카무라 겐키(中邨(村) 元起)가 1875년 8월에 『이소타케시마 각서 완(磯竹島覺書 完)』을 편찬했다.³⁹⁾ 이소타케시마는 다케시마, 즉 울릉도를 가리킨다. 이 책이야말로 일본국가의 다케시마·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39)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는 『磯竹島覺書 完』은 끝에 “明治八年八月八日校正 中邨元起”라고 쓰고 ‘元起’도장이 찍어 있으니, 이는 원본이다. 이 외에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磯竹島覺書 地理局』도 있지만, 지리국은 1877년에 지리료를 개편한 부처이니, 이 책은 그 이후의 필사본이다. 또한, 쓰쿠바(筑波)대학이 소장하는 『磯竹島事略』 乾·坤 2권은 內題가 『磯竹島覺書』이며, 『磯竹島覺書 完』의 필사본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마쓰시마(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95년 8월 12일 돛토리번이 에도막부의 최고 직함인 로쥬(老中)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이 해 3월에 오야·무라가와 양가의 배가 다케시마(울릉도)로 갔더니, 이 해도 섬에 조선인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양가는 어령을 포기하고 “뱃길 도중에 있는 마쓰시마라는 작은 섬이 보이니, 들러서 전복을 조금 따고 돌아왔다”⁴⁰⁾고 한다. 이 직후에 쓰시마번은 교착 상태에 빠진 조선과의 교섭을 에도막부와 상의하기 위해, 소 요시자네(宗義真) 등이 에도로 갔다. 이 무렵부터 막부는 다케시마에 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소타케시마 각서』에 따르면 로쥬는 돛토리번에게 다케시마 소속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그 7개조에 “다케시마 외에 양국에 속한 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돛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⁴¹⁾고 12월 25일에 대답했다. 여기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심을 가진 막부는 곧 “마쓰시마라는 섬은 이나바국(因幡國) 호키국에 부속하느냐?”고 물었더니, 돛토리번은 “마쓰시마는 양국에 부속되지 않습니다. 다케시마로의 도해 도중에 있는 섬입니다”⁴²⁾고 대답했다. 에도막부는 다케시마 일건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마쓰시마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돛토리번 회답을 통해서 마쓰시마가 이나바·호키 양국, 즉 돛토리번의 영지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마쓰에(松江)번도 조사하고, 마쓰에번에 사는 선원들이 요나고 상인들에 고용되어 다케시마로 도해했음을 알았으며, 마쓰에번 자체는 다케시마 도해 사업과 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해 1696년 1월 12일에 막부는 쓰시마번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뜻을 전했다. 『이소타케시마 각서』에 따르면, 그 이

유는 (1)돛토리번 어민이 다케시마로 어령을 하고 싶다는 청을 허가했을 뿐, 조선의 섬을 빼앗긴 것도 아닌 듯하다, (2)섬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약 40리, 호키국에서 약 160리이며,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의 울릉도인 것 같다, (3)일본이 섬을 가진 증거가 있거나 혹은 일본인이 거주했다면 조선에 넘겨주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직후, 에도막부는 신중히 돛토리번에 대해 이즈모 등 타국으로부터의 출어의 유무와 마쓰시마의 상황을 다시 질문했다. 돛토리번은 오야·무라가와 양가가 타국의 자를 고용해 같은 배로 도해한 일은 있지만 타국의 어민들 스스로가 도해한 일은 없다는 것이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에 도해할 때 도중에 있기 때문에 들러서 사냥을 했으며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회답했다.⁴³⁾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에도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쓰시마번과 돛토리번에 내렸다. 『이소타케

43) 「각서」 마쓰다이아 호키노카미 (『磯竹島覺書 完』)

— 호키국 요나고 백성 오야 규에몬·무라카와 이치베의 선원들 외에 영지 사람들이 다케시마로 도해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영지의 자들이 도해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오야 규에몬·무라카와 이치베가 선년부터 다케시마로 도해한 것은 허가를 받아서 건너갔으니, 다른 곳에서 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앞의 선원들이 다케시마로 건너갔을 때에 이즈모국·오키국의 사냥꾼들을 고용해 요나고의 선원들과 같은 배로 건너갔습니다. 인원수는 해에 따라 다릅니다. 이즈모국에서 가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즈모국에서 2, 3명, 오키국에서 8, 9명 정도 고용되어 건너갔다고 합니다.

—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에 부속되는 섬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마쓰시마에 사냥하러 간 것은 다케시마에 도해할 때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들러서 사냥을 했습니다. 타령으로부터 사냥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단, 이즈모국(出雲國), 오키국(隱岐國) 사람들은 요나고 사람들과 같은 배로 갔습니다.

— 호키국 요나고에서 이즈모 구모즈까지 도정이 10리 정도

— 이즈모국 구모즈에서 오키국 다쿠히산까지 도정이 23리 정도

— 오키국 다쿠히산에서 동국 후쿠우라까지 7리 정도

— 후쿠우라(福浦)로부터 마쓰시마까지 80리 정도

— 마쓰시마로부터 다케시마까지 40리 정도

— 마쓰시마까지 호키국으로부터 해로 약 120리 정도입니다.

— 마쓰시마로부터 조선에는 80-90리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정월 23일

40) 『磯竹島覺書 完』, “船路に松島と申小島相見 立寄砲少々取候而歸帆仕候”.

41) 『磯竹島覺書 完』, “竹嶋之外兩國江付屬之嶋有之候哉”, “竹島松島其外兩國江付屬之島無御座候事”.

42) 『磯竹島覺書 完』, “松島与申島 因幡國伯耆國江付屬之島に候哉”, “松島兩國江付屬に而は無御座候 竹島江渡海之筋に在之島に而御座候”.

시마 각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7. 관찬 지지 『일본 지지 제요』

1875년 8월에 『이소타케시마 각서』의 편찬을 마친 내무성 지지과는 9월에 태정관 수사국 지지과(修史局地誌掛)에 옮겼다. 이에 따라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한 나카무라 겐키도 지지과로 옮기고 관찬 지지의 편찬에 참여했다.⁴⁴⁾ 따라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내무성 지지과의 인식은 그대로 태정관에 계승됐다. 이는 태정관 지지과가 편찬한 관찬지지 『일본 지지 제요』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전 8책이 1875년부터 187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됐는데 이 중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권50 「오키」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제5책은 지지과가 폐지된⁴⁵⁾ 직후인 1878년 1월에 발간됐다.⁴⁶⁾ 이 안에 「오키」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혼슈(本州)의 속도. 치부리군(知夫郡) 45. 아마군(海士郡) 16. 수키군(周吉郡) 75. 오치군(穩地郡) 43. 합계 179. 이를 총칭해 오키노코지마(隱岐の小島)라고 한다.

44) 『日本地誌提要』(국립공문서관 소장) 머리말. 영인은 『日本地誌提要』全一册, 臨川書店, 1982.

45) 지지과는 1877년 1월에 축소되고 태정관 수사관(修史館) 제3국 을과(乙科)로 됐으며, 동년 12월에 폐지되고 지지 사무는 내무성 지리국이 맡게 됐다. 1878년 1월에 내무성은 지리국에 지지과를 설치했다. 출처는 佐藤 侑, 「内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 『古地図研究』 305号, 1999, pp.7-9.

46) 제5책 표지에 “元正院地誌課編纂 第五册 日本地誌提要 紀元二千五百三十八年 明治十一年一月刊行”이라고 쓰고 있다.

○ 또한 서북 방향에 마쓰시마·다케시마 두 섬이 있다. 토속이 전하고 말한다. 오치군의 후쿠우라항(福浦港)으로부터 마쓰시마에 이른다. 해로 약 69리 35정. 다케시마에 이른다. 해로 약 100리 4정 남짓. 조선에 이르는 해로 약 136리 30정. (1리는 4km, 1정은 110m, 주)

『일본 지지 제요』는 인슈(隱州)의 속도를 179개 섬으로 보고, 이 안에 다케시마·마쓰시마 두 섬을 넣지 않았으며, 두 섬을 별도로 기술했다. 이는 다케시마·마쓰시마 두 섬이 인슈에 속하지 않으며, 물론 다른 지방에 소속된 것도 아니다. 즉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메이지 시대의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도 그렇게 보았다. 다나카는 한 때 다케시마(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했지만, 그는 『일본 지지 제요』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함께 일본영토 밖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⁴⁷⁾ 이처럼 태정관이 작성한 관찬 지지가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한 것이다.

8. 태정관 ‘다케시마 외 1도’ 지령서

안용복사건의 영향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한 1877년 태정관 지령서에도 볼 수 있다. 1876년 10월에 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에 관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지적 편찬 질의서’를 접수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독도임이 시마네현 질의서의 부속 문서에서 명백하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일찍이 지리료 지지과가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했으니 내무성은 쉽게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내무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47)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 pp.136-139.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하고, 이 근거로 다음 4가지 자료를 들었다.

제1호: 구 정부 평의의 취지

로주가 쓰시마번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를 명했을 때의 기록이며, 이는 『다케시마 기사』 1696년 1월 28일 조를 인용한 것이다. 도해를 금지한 이유는 앞의 『이소다케시마 각서』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같다.

제2호: 조선 역관에 보낸 각서

쓰시마번이 에도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조선 역관에 알린 각서이며, 이는 『다케시마 기사』 1696년 10월 조를 인용한 것이다.

제3호: 조선국에서 온 서간

조선 예조 참의가 울릉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쟁계의 해결을 촉하하는 내용으로 쓰시마번에게 보낸 1698년 3월 일자 서간이며, 이는 『다케시마 기사』 1698년 4월 혹은 『이소다케시마 각서』의 인용이다. 또한, 이 서간은 앞의 외무성 『취조서』의 「다케시마 일건」에 있는 서간 제5통과도 같다.

제4호: 쓰시마번의 마지막 서간

쓰시마번이 조선 예조에 보낸 다케시마일건의 해결을 촉하하는 서간과 다케시마일건을 쓰시마번 입장에서 본 경과를 쓴 1699년 1월 일자 구상서이며, 이들은 『다케시마 기사』 1699년 1월의 인용이다. 또한, 서간의 사본은 『이소다케시마 각서』 및 앞의 외무성 『취조서』의 「다케시마 일건」에 있는 서간 제6통에도 있다.

이처럼 내무성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잘 조사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영토의 취사를 국가의 중대사로 인식한 내무성은 신중을 기해, 시마네현의 질의서와 같은 대목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의서’를 1877년 3월 17일에 태정관에 제출했다. 태정관에는 『일본 지지 제요』를 편찬한 지지과가 이름을 수사관(修史館) 제3국 을과(乙科)라고 바꾸고 건재했으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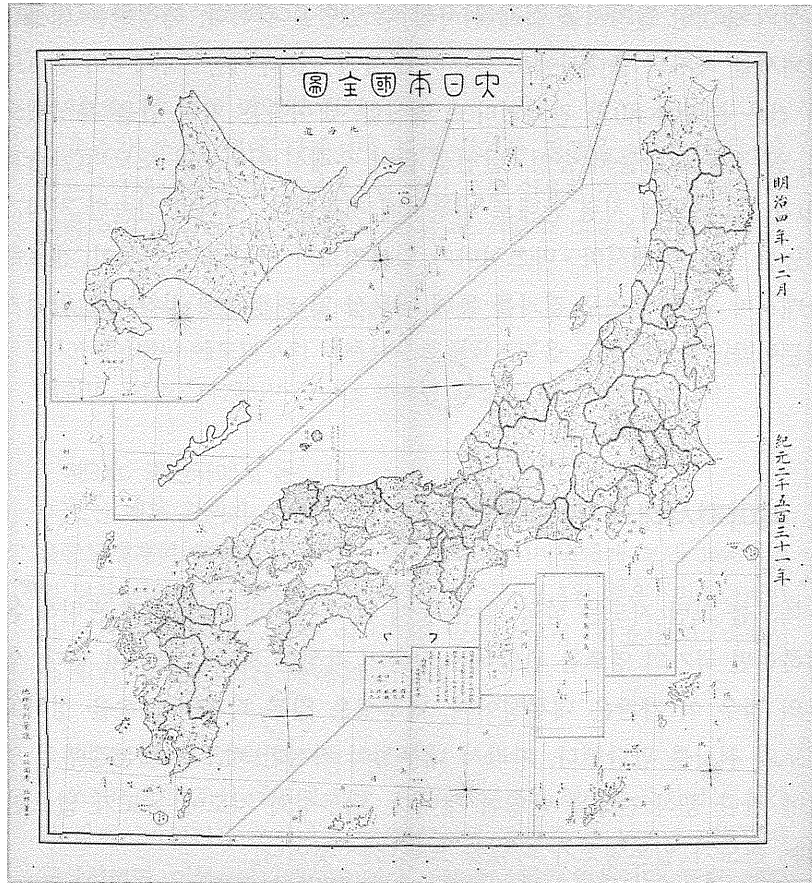
무성의 중대한 질의서를 쉽게 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태정관은 내무성 질의서를 국가의 중대사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후에는 “다케시마 외 1도의 건은 본방(本邦)과 관계없다고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 안을 작성했으며, 곧 정부 고관들의 승인·날인을 받아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3월 29일에 지령 안대로 내무성에 지령했다. 이처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내무성 및 태정관에 정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9. 메이지시대의 관찬 지도

독도를 그린 지도는 한국, 일본 등에 많이 있지만, 영유권과 관련해 논의하려면 국가의 영토를 관할하는 당국이 작성한 지도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 가관은 내무성이며, 내무성은 일본 각지의 소속을 정하고 영토의 취사를 판단했다. 따라서 내무성이 작성한 지도는 일본정부의 영토에 관한 공식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내무성의 지도에 독도가 없으면,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내무성의 지도를 살펴본다. 내무성 지리국은 에도시대의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대일본 연해 여지 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바탕으로 「대일본 부현 관할도(大日本府縣管轄圖)」(1879),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國全圖)」(1880), 『대일본 부현 분할도(大日本府縣分轄圖)』(1881) 등을 작성했다. 이 관찬지도 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그리지 않거나, 그러도 일본 영토로 다루지 않았다.⁴⁸⁾ 게다가 내무성은 「대일본국 전도」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 소속 변천을 밝힌 지도 책 『대일본국

⁴⁸⁾ 박병섭, 전계 논문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p.173.



[도판5] 내무성 지도 책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國全圖)』의 일부
1871-83년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었다.

전도(大日本國全圖)』를 1883년경에 발간했는데, 이 안의 지도 12장 모두에 독도는 없다. 이 지도 책은 1883년을 기준으로 해, 폐번치현(廢藩置縣)을 실시한 1871년부터 매년 같이 섬을 포함한 각지의 소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힌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릴(치시마 千島)열도 북부는 일본영토가 된 1875년 5월 이전의 지도에는 일본영토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그 후의 지도에는 일본영토로 표시됐다. 이 지도 책에 독도가 없다는 것은 내

무성은 적어도 1871년부터 1883년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인식은 그 후도 계속됐으며, 1904년에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리양코도(독도) 영토 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내무성으로 신청했을 때 내무성은 리양코도는 한국 영지로 의심된다고 강력히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본은 역사상 독도를 조선·한국 영토로 판단한 일은 몇 번이나 있었으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판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10. 조선에 대한 영향

안용복사건 당시에 울릉도·우산도는 조선정부가 “300년 동안 비워져 내버려둔 땅”이었다.⁴⁹⁾ 또한, 이수광 『지봉유설』도 “근자에 들으니 왜적이 의죽도(울릉도)를 점거했다”고 기록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쓰시마 번도 울릉도쟁계 때에 “예전에 울릉도는 조선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일본에 속하고, 다케시마는 즉 울릉도라고 듣고 있다.”⁵⁰⁾고 조선정부에 주장했다. 이처럼 울릉도는 거의 일본 땅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울릉도쟁계’가 시작되고, 앞에 쓴 바와 같이 울릉도가 조선 땅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안용복·이인성 등이 1696년에 자산도(독도)를 실제로 확인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일본에서 자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며, 그 위치는 울릉도에서 50리(200km)에 있다고 주장했다.⁵¹⁾ 이 결과, 조선의 관찬서 『동국문헌비고』 등에 “울릉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

49) 『속종실록』 숙종 19년 11월 18일.

50) 『竹島紀事』, 元祿6(1693)年12月10日, ‘正官口上’

51) 무라카미가문서, 즉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됐다. 그 후도 이 인식이 관찬서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 이어졌다.

11. 결론

1693년의 안용복사건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 영유권 논쟁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시작되고, 이 결과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이 논쟁에서 독도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쓰시마(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케시마와 더불어 조선 땅으로 인식했다. 이는 교호기의 다케시마 밀무역 사건 때에 재확인됐다. 즉 돗토리번이 에도막부에 제출한 「교호 9(1724)년 갑진년 윤4월 16일 막부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 다케시마노 가키쓰케 3통」에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도판1)가 첨부됐는데, 여기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바로 옆에 그려졌다. 게다가 그 밑에 '조선국'이라고 기입됐으니 이는 분명히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체로 조선 부속임을 표현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에도막부는 덴포기에는 스스로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을 드러내는 그림지도까지 그렸다. 즉 에도막부는 '덴포 다케시마 일건'때에 사건의 기록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를 작성하고 그림지도(도판4)를 첨부했는데, 이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그리고 두 섬이 조선영토임을 표현했다. 에도막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간" 하치에몬 등 범죄자들을 처형한 것이다. 즉 다케시마 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처벌의 대상으로 했다. 에도막부의 이런 인식은 에도시대 말기에도 변함이 없었다. 1860년에 가쓰라 고고로(기도 다카요시) 등은 에도막

부에 마쓰시마(독도)를 포함한 다케시마(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를 제출했는데, 에도막부는 그 섬이 조선영토라는 이유로 건언서를 각하했다.

이런 인식은 메이지 신 정부에 계승됐다. 1870년에 메이지정부는 조선을 내탐하기 위해 모리야마 시게루 등을 쓰시마번과 부산의 왜관으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잘 조사해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안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된 시말」이라는 대목의 글을 썼다. 단,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영토로 확정된 기록은 별책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 안에 「다케시마 일건」이라는 대목으로 잘 설명되고 있으나, 마쓰시마(독도)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의 유무보다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이웃에 있는 섬"이라는 쓰시마번의 인식 등을 중시해 마쓰시마도 조선 부속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만큼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에 부속된 섬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외무성의 보고서는 태정관에 제출됐지만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공식 견해는 보통 국경이나 국토를 다스리는 내무성이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문제에 있어서는 내무성이 적성한 관찬지도 및 관찬지도 등이 아주 중요하다. 내무성의 조사인데, 지리료 지지과가 일본의 국토를 확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을 조사해 1875년에 『이소다케시마 각서』를 편찬했다. 지지과는 이 책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결과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 밖으로 됐다고 이해했다.

이 직후에 내무성 지지과는 태정관 수사국 지지과로 옮겨 관찬 지지 『일본지지제요』를 편찬했다. 이 때 『이소다케시마 각서』를 편찬한 나카무라 겐키도 관찬지도 편찬에 참여했으며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인식은 계승됐다. 이 결과 두 섬은 『일본지지제요』 권50 「오키」에서 오키국의 부속 섬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물론 다른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 밖으로 간주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이

지시대의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도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인식이 1877년에 태정관에 의한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영토와 관계없다라는 지령에 이어졌다.

한편, 내무성 지리국은 1880년에 완성시킨 「대일본국 전도」를 바탕으로 일본 각지의 소속의 변천을 밝힌 지도 책 『대일본국 전도』(도판5)를 1883년경에 발간했다. 이 안의 지도 12장에 독도는 없다. 이는 일본의 관찬 지도가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본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에도막부 및 메이지정부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으나, 일본영토로 인식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
- 박병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심포지움 보고서』, 대구한의대학교, 2011
- 『속종실록』
- 이훈,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2005.
- 이수광, 『지봉유설』.
-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
- 池内敏, 「近世日本の西北限界」, 『史林』 90卷 1号, 2007.
-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外務省,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十のポイント』.
- 岸本寛, 「幕末海防論と「境界」意識」, 『江戸の思想』 9, ベリカン社, 1998.
- 小美濃清明, 『坂本龍馬と竹島開拓』, 新人物往來社, 2009.
- 『木戸孝允文書』 8, 日本史籍協会, 1931.
- 佐藤尙, 「内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 『古地図研究』 305号, 1999.
- 下條正男, 「「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05.
- 島根縣 팸플릿, 『竹島』 pdf版, 2006.
- 塚本孝, 「竹島關係旧島取藩文書および絵図」, 『レファレンス』 411号, 1985.
- 塚本孝, 「韓國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 『東アジア近代史』 第14号, 2011.
-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3版)」, 『調査と情報』 701호, 2012.
- 内藤正中,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號, 2010.
-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独島論争』, 新幹社, 2007.
- 堀和生,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호, 1987.
-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
- 箭内健次, 『通航一覽續輯』 第1卷, 清文堂出版, 1968.
- 『山陰新聞』
- 『因幡志』
- 『石見外記』

- 『因府歷年略史』
 『磯竹島事略』
 『磯竹島覺書 完』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公文別錄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第一卷(國立公文書館所藏)
 『御用人日記』
 『新修島根県史』史料編3(近世下), 1967.
 『宗家文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竹島紀事』
 『竹島之書付』(鳥取県立博物館 所藏)
 『竹島渡海一件記』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藏.
 『朝鮮竹島渡航始末記』浜田市立図書館所藏.
 『通航一覽續輯』卷之五.
 『「日本地誌提要」全一冊』, 臨川書店, 1982.
 『吉田松陰全集』第9卷, 大和書房, 1974.

<日本語要約>

安龍福事件以後の竹島領有権問題

朴炳涉

安龍福拉致事件を機に始まった元祿竹島一件の結果、江戸幕府は竹島渡海禁止令をくだした。この禁止令に松島の名はなかったが、禁止令を発した経緯から考えると「竹島近所の松島」へも渡海も禁止されたのである。さらに、竹島・松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は1724年(享保9)に鳥取藩から幕府へ提出された「竹島之書付三通」付属の絵図「竹島図」でも確認される。同図は明らかに竹島・松島の一對を朝鮮領に描いた。

その後、幕府は天保竹島一件の時に事件記録『朝鮮竹島渡航始末記』を作成したが、それに付属する絵図にて竹島・松島を朝鮮領として描いた。これは元祿竹島一件の認識を引きついたのである。この認識は幕末に至っても引きつがれ、幕府は長州藩の桂小五郎らから提出された松島を含む竹島開拓願に対し、竹島は天保期に朝鮮領であると確認したという理由で却下した。

このような竹島・松島を朝鮮領とする認識は明治政府にも引きつがれた。明治初年、朝鮮を内探するために釜山の倭館などに派遣された外務省の官僚は元祿竹島一件の記録を充分調査して竹島・松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一方、内務省では地誌課が官撰地誌を編纂する過程で元祿竹島一件を調査し、竹島・松島が日本のどの国にも属さないことを確認した『磯竹島覺書』を編纂した。その直後、地誌課は太政官へ移って官撰地誌『日本地誌提要』を編纂したが、同書でも竹島・松島が日本領外であるとの認識は受け継がれた。

このように内務省・太政官は竹島・松島が日本領でないという認識をもっていたので、島根県から「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角」が提出された時、容易に竹島・松島は日本と関係ないと結論を出した。これにもとづいて内務省は一貫して竹島・松島を日本領外とする官撰地図を作成した。特に地図帳『大日本国全図』では1871

年から1883年まで日本各地の所属の変遷を12枚の地図に示したが、そのすべての地図に竹島・松島はなく、日本領として扱われなかった。

結局、日本は歴史上、独島を朝鮮・韓国領と判断したことは何度かあったが、独島を日本領と判断し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そのような独島を日本は帝国主義的な手法で1905年に日本領へ編入し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外務省の独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主張は成り立たない。

キーワード: 元禄竹島一件、享保「竹島図」、天保竹島一件、『磯竹島覚書』、『日本地誌提要』、『大日本国全図』

| | |
|-------|----------------------|
| 이 논문은 |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
| |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
| | 2012년 12월 15일 게재·결정됨 |